

## 한중 문장 표현 대조

김 충 실

### Abstract

**Jinzhongshi** 2013. 2. 28. **Korean-Chinese sentence expression comparison.** *Bilingual Research* 51, 27-43. This paper, with a view to probe into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a comparative study on Chinese and Korean sentence expression based on excerpts from some textbooks. Through this paper, we have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n idioms that describe processes, Koreans employ mainly sufficient conditional sentences while Chinese employ mainly subjunctive conditional sentences. In the mean time, Koreans prefer affirmative sentences while Chinese prefer negative sentences.

Second, in conversations that contain interrogatives, Chinese tend to use selective interrogatives while Koreans tend to use general questions.

Third, in conversations that express demands, Chinese frequently use explicit expression such as imperatives and requests while Koreans use frequently implicit expressions like interrogative sentences.

Forth, in expressions that showcase subjects of sentences, there are more limitations on subject omission in Chinese than in Korean. What's more, in the expression of imperatives, Koreans uses more non-subject sentences.

Fifth, in expressions that convey condition and behavior, Chinese prefer object clause and tend to use behavioral description while Koreans prefer subject-predicate clause and tend to use conditional description.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Key words】** Korean and Chinese (한중), sentence expression(문장표현), comparison(대조)

## 1. 서론

언어는 해당 사회와 문화의 거울이다. 언어는 표현의 대상인 사회문화의 배경과 맞물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해당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사피어(1929)에서는 “사실에 있어서 ‘현실’이란 한 언어 집단의 언어 습관 위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같은 사회현실을 꼭 같이 표현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언어는 없다.”고 했다.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오해는 언어 그 자체보다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2언어 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은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필자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조하여 두 언어에서 선호하는 문장 표현<sup>1)</sup>이 어떻게 다른지 제시하고 이러한 차이점들이 중국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떤 부정전이를 일으키게 되는지 살펴보겠다.

## 2. 기존의 연구

일본어의 연구방향으로 寺村(1976:213)은 일본어와 영어를 대조하여 언어의 전체적인 특징을 논하는 유형론적 가설로서 영어는 “do(하다)”형 언어이고 일본어는 “なる(되다)”형의 언어로 분류했다. 또 이러한 유형적 분류와 잘 합치되는 설명도 제안되어 있는데 國廣哲彌(1974)에 의하면 타동사 표현은 인간에 초점을 두고 자동사 표현은 상황에 초점을 둔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어의 연구방향으로 김미형(2009:166)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문장 표현방식을 인지적 관점에서 대조하여 영어는 화자중심 표현 언어인데 비하여 한국어는 청자나 대상 중심표현 언어이고 영어

1) 이 글에서 쓴 “문장표현”이란 용어는 김미형의 『인지적 대조언어학의 방법』에서 “문장표현 방식의 비교, 대조”라는 글에서 따온 것이다.

는 결과 표현중심 언어인데 비하여 한국어는 과정표현 중심언어라고 논의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관규(2002:372-373)에서도 영어는 화자중심의 언어이고 한국어는 청자중심의 언어라고 논의했다. 김미형과 이관규의 고찰은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중국에서도 중국어는 화자 중심언어이고 한국어는 청자중심언어라는 논의가 오래 전에 있었다. 그 근거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중국인은 두부를 팔 때 “두부를 팝니다.(賣豆腐了。)”라고 외치고 한국인은 “두부를 사시오.(請買豆腐吧。)”라고 외친다. 중국인은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두부를 판다고 말하고 한국인은 청자의 입장에서 두부를 사라고 청유문을 쓰고 있다. 또 강낙중(2000:11-70)에서는 영어는 소유 중심의 언어이고 한국어는 존재중심의 언어라고 논의한 바 있다. 사회언어학적 가설로서 서정수(1993)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영어의 두괄식 표현과 한국어의 미괄식 표현을 쓰는 현상에 대해 사회언어학적 시각에서 그 생성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하나는 미괄식 언어표현은 순리적인 사고 유형을 낳는다는 점이다. 즉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부터 더 중요한 것으로 발전하여 가는 자연스런 접근 의식이다. 두 번째는 한국어 미괄식 문장은 절정감을 형성한다. 즉 주변적인 것을 서술하면서 점차 분위기를 고조해 가다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한국어의 어순 자체에 맞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은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거절이나 부정하는 표현 등에서 결정적인 표현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시킨다고 논의하였다.<sup>2)</sup>

위의 논의들은 언어유형론과 인지언어학, 그리고 사회언어학 이론을 바탕으로 접근하여 종래의 통사론의 해석보다 좀 더 유연하게 언어현상을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쉬운 점이라면 모두 영어와 한국어, 또는 영어와 일어, 한국어와 일어 등의 대조였고 이론적으로 한국어의

2) 서정수 논의는 김미형(2009) 『인지적 대조언어학의 방법론 연구』 198쪽 재인용.

전체적인 특징을 논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본고는 위에서 논의된 가설에 기대어 그들의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선호하는 문장표현을 대조하여 다른 점을 제시하겠다. 본고가 위의 논문과 다른 점이라면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교재에 입력된 일부 자료를 논의 대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장표현 대조를 통해 한국어를 상대화, 객관화시켜 그 특징을 자세히 살피고자 한 것이다.

### 3. 한중 두 언어에서 선호하는 문장 표현 대조

긍정문, 부정문, 명령문, 의문문, 그리고 주어문과 무주어문, 주술어문과 목적어문은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장들이다. 한국어와 중국어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인과 중국인은 이런 문장을 담화에 표현할 때 선호하는 표현이 다르다. 사고는 언어에 반영된다.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고 그에 따른 언어의 표현방식을 알게 되면 언어 학습에 유익하다. 아래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선호하는 표현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 3.1. 과정표현: 충분조건문형식과 가정조건문형식

과정표현 논의에 사용된 언어자료는 중국 일반 대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세대 한국어교재에서 찾은 속담이다. 교재에 입력된 속담을 살펴보면 속담에서 한국어는 조건문을 사용하여 과정을 표현하였고 같은 뜻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중국어에서는 가정조건문을 사용하여 나타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1) ㄱ.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한국어 4권)  
(上梁不正下梁歪。)

ㄴ. 범의 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는다.(한국어5권)

(不入虎穴焉得虎子。)

ㄷ.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한국어3권)

來言不恭, 去言不敬。

위의 한국어 속담의 뜻을 나타내는 중국어 속담을 직역하면 아래와 같다.

ㄱ'. 위의 대들보가 바르지 않으면 아래 대들보도 비뚤게 된다.

ㄴ'. 범에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범의 새끼를 얻을 수 없다.

ㄷ' 오는 말이 공손하지 않으면 가는 말도 공손하지 않다.

충분조건문과 가정조건문으로 쓴 것 외에 한국어 속담은 모두 긍정을 나타내는 조건문인데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속담은 모두 부정소를 써서 나타낸 것이 또한 한국어와 다르다. 아래의 속담을 예로 더 들 수 있다.

ㄷ. 싸움 끝에 정이 든다.(한국어5권)

(不打不成交。)싸우지 않으면 사귄 수 없다.

ㄹ. 첫술에 배부르랴.(한국어4권)

(一口吃不出胖子。)

ㅇ.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한국어4권)

(初生牛犢不怕虎。)

ㅈ.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한국어3권)

(遠親不如近隣。)

ㅊ. 모르는 것이 약이다.(眼不見心不煩。)

이외에도 “남이 떡이 더 커 보인다.”를 “家花不如野花香。”으로 표현하고,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

어진다.”는 “瓜田不納履，李下不正冠。”으로 표현하고 “바늘 가는 데 실 간다.”는 “形影不離。”로 표현하여 모두 부정소 틀 써서 나타냈다. 만약 위의 한국어 속담표현을 긍정문 그대로 번역한다면 중국어의 리듬이 깨지고 또 중국어 언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자연스런 표현이 될 것이다.

### 3.2. 질문표현: 선택의문문 형식과 가부의문문 형식

담화에서 보면 중국어에서는 질문을 할 때 흔히 V不V형식(去不去?)과 A不A 형식(好不好?)으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다. 이같이 선택의문문의 형식을 쓰지만 한국어에서는 가부의문문 형식을 쓰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2) (你)去不去看電影?
- (3) (你)吃不吃面條?
- (4) (你)熱不熱?
- (5) 星期天(你)忙不忙?

위의 중국어 예문을 한국어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 (2)' 너 영화 보러 가겠니, 안 가겠니?
- (3)' 너 국수 먹겠니, 안 먹겠니?
- (4)' 너 덥니, 안 덥니?
- (5)' 너 일요일에 바쁘니, 안 바쁘니?

위의 예문을 보면 모두 적격문으로 비문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 동사일 경우에는 그 행동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 추궁하는 느낌이 들게 함으로 이런 표현은 한국인들이 듣기에

거부감을 가진다. 위의 표현을 한국어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 (6) 구수 먹을래? / 국수 안 먹겠니?
- (7) 영화 보러 갈래? / 영화 보러 안가겠니?

형용사의 경우, 한국어에서 굳이 선택의문문으로 표현한다면 언어의 경제성원리에 어긋나는 표현이 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형용사에 쓰일 때도 경제성 원리에 어긋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의 예문(4)와 (5)를 한국어에서는 아래와 같이 쓴다.

- (8)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 (9) 바쁘세요? / 안 바쁘세요?
- (10) 힘드세요? / 안 힘드세요?

위에서 부정소 “안”을 쓴 문장은 화자가 상대방이 덥거나 바쁘거나 힘들다고 판단될 때 쓰는 표현으로 부정소가 없는 문장의 의미와는 다르다. 이와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오히려 부정소가 있는 不熱嗎, 不忙嗎, 不累嗎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쓸 때 이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의사소통에서 전략적인 실패를 하게 된다. 반면에 한국인 학습자들은 이런 부정소가 있는 것을 피하고 한국식으로 “忙嗎?”, “熱嗎?”, “吃面條嗎?”, “去看電影嗎?”하는 식으로 어색한 발화를 하게 된다.

### 3.3. 요청표현: 청유문 형식과 의문문 형식

한국어에서는 요청을 나타낼 때 청유문의 간접화행을 써서 의문문으로 나타내고 중국어에서는 청유문을 직접화행으로 표현하고 간접화행인

의문문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YanHuang(1995:139-150)의 설명에 따르면 문장 유형과 발화 수반력 간에 직접적인 대응이 존재할 경우, 직접화행이 나타난다. 반면에 문장유형과 발화 수반력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 간접화행이 나타난다. 풀어 말하면 명시적 수행문이 요구하는데 사용될 경우 그 수행문은 직접 화행으로 가능하며 의문문이 요구하기에 사용되면 간접화행과 관련된다. 이어서 저자는 사람들이 왜 간접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는 질문에 간접화행은 일반적으로 공손성과 관련되어 있고 직접화행보다는 더 공손한 것으로 간주되고 화행이 보다 더 간접적으로 표현될수록 공손한 표현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필자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간접표현은 청자중심과 연결되며 직접표현은 화자중심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김미형(2009)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대조하여 한국어는 담화에서 주어가 생략되고 존대법을 사용하여 청자를 공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어의 질문과 대답의 형식에 대조하여 한국어는 청자중심의 언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영어와 한국어 대조에서 논의된 것은 제외하고 한국어와 중국어에 쓰인 간접표현과 직접표현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일한 화행이 언어에 따라,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다른 유형의 언어이지만 같은 동양권의 언어로서 비슷한 점도 있다. 칭찬-의식적인 부인, 제공-의식적인 거절 등 칭찬과 제공에 대한 반응 패턴은 같게 나타났다. 칭찬에 대한 반응과 선물을 줄 때, 그리고 빚을 갚는데 대한 반응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 (11) 칭찬할 때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예요. 잘 못해요.

정말이에요. 한국 사람과 똑 같이 하네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직 멀었어요.

(결과적으로 칭찬을 받아들이고 기뻐한다.)

(12) 선물할 때

스카프를 한 장 샀어요.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뭘 이런 것을... 그만 두세요.

약소하나 성의로 받아 주세요.

뭐 이렇게 비싼걸...(결과적으로 선물을 받는다.)

(13) 빌린 돈을 갚을 때

지난번에 빌린 돈이에요.

저는 벌써 잊었는데요. 그만 두세요.

너무 늦게 드려 미안해요.

괜찮대 두 그러네요. 도로 넣으세요.

(결과적으로 돈을 받는다.)

위의 경우는 중국어도 똑 같은 화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동일한 화행이 직접성과 간접성에 있어서 민족에 따라, 문화에 따라,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래는 요구하기와 요청하기의 담화에서 사용된 문장 표현이다.

(14) 저 지금 3번 출구에 있어요. 3번 출구로 나와 주시겠어요?

我在三号出口, 請您從三号出口出來吧。

(15) 좀 춥네요. 창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有点儿冷, 請(你)把窗戶關一下。

(16) 이거 좀 드셔보시겠어요?

請(你)把這個尝尝吧。

(17) 이 서류 좀 봐주시겠어요?

請(你)幫我看一下這個資料。

위의 예문은 요구하기 화행인데 한국어에서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표현되었고 이와 반면에 중국어는 의문문이 아니라 청유문으로 표현되었다. 만약 의문문으로 표현했다면 그 행동의 실현 가능성을 물어본 것으로 원래 나타내려고 했던 청유나 명령의 뜻은 없어진다.

- (14) 我在三号出口, 你能不能三号出口出來呀?
- (15) 有点儿冷, 你把窗戶關一下, 好嗎?
- (16) 把這個尝尝好嗎?
- (17) 您能不能幫我看一下這個資料?

우리는 이런 현상을 홀볼트(1835)의 기술에서 그 해석을 찾아보았다. 홀볼트는 “언어의 구조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내적 삶을 표현하며 인간이란 언어가 제공하는 대로 그 주위에 있는 세계와 함께 산다. 모든 언어는 한 겨레의 문화적인 전통 속에서 자라난 열이 담겨있다. 언어는 늘 하나의 공동체와 더불어 자라나는데 그 공동체의 정신까지 담겨있어서 그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의 정서와 사유와 감성까지 인도한다”고 했다. 간접화행과 직접화행의 사용에서 문화 간 변이들은 중간언어에서도 자주 나타났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요구하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므로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한국인들은 화자의 발화가 부드럽거나 온화하지 않고 딱딱하거나 굳은 표현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러한 화용적 전이는 제2언어 습득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2언어 교육에서 문법 지향적 관점에서만 해석하지 말고 문화적 변이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 3.4. 행위자표현: 주어문과 무주어문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임의적으로 자유로이 생략되고 영어는

생략이 되지 않는다고 기술되어 왔다. 중국어는 영어만큼은 아니지만 생략현상이 한국어보다는 제약이 있다. 특히 명령문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어 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명령문이라 해도 주어의 생략이 자유롭지 않다. 아래 한국어의 무주어문과 중국어의 유주어문에 대해 살펴보자.

위의 3.2에서 예문 (14)부터 (17)까지 한국어 문장을 보면 거의 주어가 없는 문장이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모두 주어가 나타나 있다. 구어에서 화자와 청자가 다 알고 있는 정보일 때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지만 문장으로 쓸 때는 생략된 주어를 괄호 안에 넣어 표시함으로써 주어가 없는 발화를 주어가 있는 문장으로 만든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런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흔히 오류를 만든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다.

- (18) ㄱ. 교수님, 당신께서는 오후에 시간이 있습니까?\*
- ㄴ. 교수님, 교수님께서 이 서류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 ㄷ. 진수 씨, 니 창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

예문(18)에서와 같이 주어구문에 익숙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발화를 할 때 주어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어를 넣어서 오히려 어색한 발화를 하게 된다. 더구나 이인칭이 你와 您밖에 없는 모국어 영향으로 한국어의 복잡한 이인칭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오류를 많이 산출한다. 위에서처럼 “당신, 니”하거나 불필요한 주어를 만들어서 발화한다. 위의 예문에서 주어를 삭제하면 아래와 같이 자연스런 발화가 된다.

- (18)' ㄱ. 교수님, 오후에 시간이 있습니까?
- ㄴ. 교수님, 이 서류 좀 봐주시겠습니까?

ㄷ. 진수 씨,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 반면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어 학습자들은 발화하거나 문장을 쓸 때 오히려 필요한 주어를 생략시켜 어색한 문장을 만든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9) ㄱ. 周末有時間嗎? \*

ㄴ. 教授, 請幫我看一下論文。 \*

ㄷ. 先生, 請把門開一下。 \*

이런 오류는 두 나라 언어학습자들에게서 공동으로 나타나는 오현상이다. 하지만 교재 설명에 보면 이런 차이점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므로 진정 국별화 된 교재를 만들려고 한다면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문법적인 공통점과 차이점만 기술할 것이 아니라 화용적, 문화적 요소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해야 할 것이다.

### 3.5. 상태와 행위표현: 주-술어구문과 목적어 구문

한국어와 중국어는 상태와 행위를 표현하는 데서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주-술어구문의 사용과 목적어 구문의 사용현상을 통해 알아보았다. 정귀평(2007)은 자기 박사논문에서 중국어는 피영향성 성분뿐만 아니라 방식, 장소, 도구 등 성분이 모두 빈어(목적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빈어”의 구조가 우세적으로 나타난다고 논의하였다. 즉 중국어의 동사는 타동사뿐만 아니라 자동사도 빈어(목적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동사+빈어 표현이 우선적이라고 연구된 바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0) ㄱ. 講語法。 문법을 강의하다. (사물)
- ㄴ. 逛公園。 공원을 거닐다. (장소)
- ㄷ. 吃食堂。 식당에서 밥을 먹다.(장소)
- ㄹ. 跑碼頭。 부두를 뛰다.(장소)
- ㅁ. 吃大碗。 큰 사발로 먹는다.(도구)
- ㅂ. 當班長。 반장이 되다.(변화)
- ㅅ. 休息兩天。 이틀 쉬다.(수량)
- ㅇ. 有手机。 휴대전화가 있다.(존재)
- ㅈ. 看一遍。 한번 보다.(수량)

반면에 한국어는 타동사만이 목적어를 가지므로 목적어 구문 사용이 중국어에 비해 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언어 특징으로 하여 중국어는 목적어 구문 표현이 더 우세이고 한국어는 주-술어 구문 표현이 더 우세라고 가설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언어구조와 언어자체의 특징에서 바라본 결과이다. 이 논의를 극도로 확대시킨다면 기존의 정성여(2010) 대조에서 한국어는 “되다형”언어, 영어는 “하다형”언어라고 주장한 관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필자가 세종 말뭉치에서 검색한 결과 7,364,815어절에서 “하-”형태소는 439802개가 검색되었고 “되-”형태소는 86704개 검색되었다. 이는 한국어가 “하다형” 언어인지 “되다형”언어인지 의심하게 된다. 물론 “하다”는 타동사뿐 만 아니라 “궁금하다, 조용하다” 등 형용사에도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 통계만으로 한국어는 “하다”형 언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정성여(2010)에서도 비의도적인 조건에서 한국어도 자동사보다 오히려 타동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실험결과를 보고하면서 한국어는 “하다형” 언어인지, “되다형” 언어인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필자는 “하다형”이나 “되다형”이란 표현을 피하고 상태와 행위표현에서 주-술어구문과 목적어구문이란 표현으로 논의하겠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는 타동

사와 자동사가 모두 빈어(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언어로서 “목적어 구문”을 선호하는 언어에 가깝고 한국어는 “주-술어 구문형” 언어에 가깝다고 가설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타동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같지 않음을 볼 수 있다. Hopper and Thompson(1980)은 타동성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범언어적으로 유효한 조건으로 참여 항의 수가 둘 이상 있는 것, 상태보다 동작을 나타내는 것, 행위에 끝이 있는 것, 행위가 순간적인 것,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 부정보다 긍정,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실에 일어나지 않은 것 보다 현실에 일어난 것, 동작 주에게 행위 능력이 있는 것, 목적어가 영향을 받는 것, 목적어가 특정적인 것 등 10가지를 들었다.<sup>3)</sup> 목적어의 유무를 따져 타동문을 정한 한국어에 비해 범위가 훨씬 넓다. 위의 타동성 조건에서 보면 중국어의 타동성은 한국어보다 유연성이 크고 사용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21) ㄱ. 下雨了。

비가 내린다.

ㄴ. 我沒有女朋友。

나는 여자 친구가 없다.

ㄷ. 我有很多錢。

나에게 많은 돈이 있다.

ㄹ. 外面來了一個客人。

밖에 손님이 왔다.

ㅁ. 走小路吧。

작은 길로 가자.

ㅂ. 吃大碗。

큰 사발로 마신다.

---

3) Y.Tsujii(2004). 임지룡 외 옮긴 『인지언어학 키워드사전』 231쪽 재인용.

ㅅ. 吃食堂。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ㅇ. 一鍋飯吃十个人。

한 솥밥을 열사람이 먹는다.

위의 한국어 대응을 보면 (21)ㄱ, ㄴ, ㄷ, ㄹ은 주-술 구문으로 대응되었고 (21)ㅁ, ㅂ는 방식과 도구로 대응되었고, (21)ㅅ은 장소로 대응되고 (21)ㅇ은 수량으로 대응되어 중국어는 행위표현을 더 많이 하고 한국어는 상태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런 차이점은 제2언어학습에서 부정전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빈어(목적어)의 의미에 따라 한국어를 대응시키지 못하고 무조건 목적격에 대응시켜 아래와 같은 비문을 만든다.

(22) ㄱ. 비가 내린다. 비를 내린다.\*

ㄴ. 여자 친구가 있다. 여자 친구를 있다.\*

ㄷ. 돈이 없다/돈을 없다.\*

제2언어로서 한국어 교육은 이런 차이점을 고찰하여 교수에서 부정전이 적게 일어나도록 설명해 주어야 하고 교재에서도 이런 차이점을 기술평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두 언어의 공통점과 다른 점에 대한 연구를 더 심도 있게 하고 교재 역시 진정으로 국별화 된 교재가 편찬되어야 한다.

#### 4. 결론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장표현 대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선, 과정을 나타낼 때 같은 내용의 속담과 일상 담화에서 한국어는 충분조건문을 많이 쓰고 중국어는 가정조건문을 쓰며 한국어 속담은 긍정문을 많이 쓰는 대신 중국어는 부정문을 사용했다.

두 번째, 질문을 나타낼 때 중국어는 선택의문문을 선호하고 한국어는 가부의문문을 더 선호했다.

세 번째, 요구화행에서 중국어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써서 직접표현을 쓰고 한국어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쓰지 않고 의문문을 사용하여 간접표현을 했다.

네 번째,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중국어는 주어 생략이 한국어보다 제약이 더 많았고 특히 명령문에서 한국어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다섯 번째, 상태와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중국어는 목적어구문을 사용하여 행위를 더 많이 나타내고 한국어는 주-술어 구문을 사용하여 상태를 더 많이 표현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막연하게 기술만 했을 뿐 말뭉치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못했다. 본고에서 판단은 몇 개의 표현에 근거한 설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 특히 타동성 이론에 기초하여 기술한 중국어는 목적어구문을 한국어보다 더 선호한다는 가설과 부정문과 긍정문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빙성 있는 실증적인 실험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서 계속 연구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미형(2009). 『인지적 대조언어학의 방법론 연구』, (한국어와 영어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사 166쪽-184쪽.
- 송향근(2011). “한국어 교육의 대조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263쪽-305쪽.
- 이관규(2002). 『학교문법』, 개정판. 월인 372쪽-373쪽.

- 정성여(2010). “한국어는 DO language인가 실험결과에서 보여 지는 일본어, 마라티어와의 차이를 통하여” 서울, 2010년 언어학회, 겨울 공동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 언어학회, 59쪽-69쪽.
- 제효봉(201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생성과정 고찰”,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231쪽-259쪽.
- 허용(2008). “대조언어학과 보편문법의 필요성 연구”,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1쪽-24쪽.
- 房玉清(1992).『实用汉语语法』,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73쪽.
- 郑国平(2007). 动宾结构优先论解释, 博士论文, 安徽大学.
- 国廣哲彌(1974)“人間中心と状況中心:日英語表8現構造の比較” <英語青年>2月号, 688쪽-690쪽.
- 寺村秀夫(1976). “なる”表現と“する”表現: 日英 ‘態’ 表現の 比較, <日本語と日本語教育: 文字・表現編>(‘되다’표현과 ‘하다’표현: 일영 ‘태’표현의 비교), 國立國語研究所, 49쪽-68쪽.
- YanHuang(1995). 이해운 옮김.『화용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39쪽-150쪽.
- Y.Tsuji(2004). 임지룡 외 옮김.『인지언어학 키워드사전』, 한국문화사 231쪽.

김충실(Jinzhongshi)

상해외국어대학교 동방어대학 한국어학과

상해시 민항구 벽수로 98-9동 1401 우편번호 201100

전화번호: 86-13501925365

전자우편: jinzhongshi@hanmail.net

접수일자: 2012년 12월 18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2월 12일

게재확정: 2013년 2월 19일